

김헌창, 장보고의 아망과 작절

2017. 11. 14.

윤선태*

1. 신라 하대사회와 김헌창의 반란
2. 진골 귀족의 분열과 사병조직
3. 지방세력의 성장과 ‘해상왕’ 장보고

1. 신라 하대 사회와 김헌창의 반란

중대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765~780)은 왕권에 대한 진골들의 끝없는 도전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일으킨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伊飡) 김경신에 의해 피살된다. 이후 왕위는 김양상에게 넘어가니, 그가 바로 선덕왕(宣德王)이다. 이로써 태종 무열왕 직계의 중대왕실은 끝이 나고 하대가 시작된다.

선덕왕 사후에는 김경신과 무열왕의 방계인 김주원이 왕위를 둘러싸고 쟁투하였고, 김경신이 승리해 원성왕(785~798)으로 즉위한다. 이후 원성왕의 직계들이 왕위를 연이어 계승하지만, 강릉 지역으로 퇴거한 김주원 세력으로 인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침내 822년 김헌창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위다툼에서 패하여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은 중앙귀족 내부의 왕위계승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김헌창이 ‘장안(長安)’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제정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신라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성격이 짙었다. 또 이 난에 연좌되어 죽임을 당한 김헌창의 ‘종족(宗族)’과 ‘당여(黨與)’가 무려 239인이나 될 정도로 하대 진골귀족의 분열과 자기항쟁은 매우 격렬했다.

특히 김헌창의 난은 충청·전라 등 구백제 권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방세력이 난에 참여하였다. 이 지역에 파견된 진골출신의 도독(都督)·사신(仕臣) 등은 물론 하위의 지방관들과 상당수의 이 지역 지방인들이 김헌창의 난에 가담하였다. 그 이전에도 신라 국가에 반기를 든 반란은 있었지만, 모두 중앙에서 일어나 진골귀족 간의 무력적 충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김헌창 난에는 광범위하게 지방세력, 특히 구백제 권역의 지방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채를 띤다. 난 후의 논공행상에서도 난에 가담하지 않은 지방민

*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문학박사).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2000, 서울대출판부),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2007, 주류성), 『신라의 발견』(2008, 동국대출판부), 『한국고대사산책』(2017, 역사비평사)

들에 대한 면세(免稅) 조치가 뒤따랐는데, 이는 김헌창의 난에서 지방세력이 차지했던 비중을 잘 말해준다.

더욱이 김헌창의 아들인 김범문이 재차 난을 일으켰을 때, ‘고달산적(高達山賊)’이 그를 후원하였는데, 이는 김헌창의 세력기반 속에 지방세력이 포섭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달산적은 자연재해나 귀족의 토지강탈로 유리(遊離)된 민들을 규합하여 산악을 무대로 약탈을 감행하던 ‘산적’으로 이해된다. 8세기 후반 이후 기근과 자연재해가 극심해졌고, 이는 9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치안이 불안해졌고, 산적, 해적들이 양민을 잡아 해외에 노비로 판매하는 노예무역이 성행하였다.

원래 신라에서는 각 지역 9주의 도독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유리민이 초적, 산적으로 변모하고 해적이 창궐하게 되면서 치안유지를 위해 9주의 도독이 군사권을 갖게 되었다. 당시 중앙귀족들은 공적 질서에서 이탈한 지방의 무장세력이나 유리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거나, 직접 사병으로 조직하였다.

더욱이 김헌창이 규합했던 도독·사신 등의 지방관 등은 이 시기에 지방의 공적 행정·군사조직이 귀족의 사병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김헌창의 난에 동원된 지방군은 이미 공병(公兵)이 아니며, 지방관이나 유력귀족에게 포섭된 사병적 존재였다. 중앙집권력이 약화된 하대에는 이렇게 지방관들이 공적 조직에 기초해 하나의 지역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강릉으로 퇴거한 김주원처럼 왕위계승분쟁에 밀려 낙향한 진골귀족들이나 지방의 도독 등은 식읍이나 녹읍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유력자로 변모하였다.

비담의 난을 위시해 중대에 일어난 신라 귀족의 반란들은 왕경(王京)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쟁투였다. 그러나 하대에 들어와서는 중앙귀족의 무력기반과 반란지역이 종전과는 달리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해공왕대 96각간의 난에 참여한 ‘5도의 주군(州郡)’세력에서 최초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앙귀족, 왕경세력간의 문제였던 기존의 반란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2. 진골 귀족의 분열과 사병조직

신라 하대사회는 왕위계승 분쟁으로 인한 왕권의 약화로 공적인 군사 조직은 유명무실해졌고, 진골 귀족간의 정권 쟁탈 속에서 군사적 충돌이 격증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유력 귀족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자신의 ‘종족’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당여(黨與)’를 비롯해, 지방 세력까지도 포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불렀고, 이러한 권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는 무장 사병을 양성하는데 진력하였다.

『신당서』에 의하면 이 시기 신라의 재상가(宰相家)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고, 하인 및 노비들이 3천명이나 되는데, 무기도 이와 비슷한 수로 있었다고 한다. 또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면 노비(奴婢)로 삼았다. 이 재상가의 하인 및 노비 3천명은 그와 비슷한 수로 보유했던 무기와 관련지어 볼 때,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병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재상가의 인적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재상가가 고리대

로 예측했던 채무노비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대 진골귀족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조직의 면모는 836년 흥덕왕 사후에 벌어진 왕위쟁탈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삼국사기』의 ‘김양’ 열전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흥덕왕이 죽고 그를 계승할 적자가 없자, 왕의 사촌인 균정과 균정의 조카인 제룡 간에 왕위다툼이 일어났다. 이때 김양은 균정의 아들 우정과 균정의 매부 예정과 함께 균정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족병(族兵)’으로 대궐을 호위하였다. 이에 제룡의 ‘당(黨)’인 흥덕왕의 조카 김명과 이흥 등이 대궐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김양은 궁문에 진을 치고 대항하다가, 제룡의 부하인 배훤백이 쏜 화살에 다리를 맞게 된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후일을 도모하라는 균정의 말을 듣고 양과 우정은 포위를 뚫고 달아나지만, 균정은 피하지 못하고 결국 난병에 살해된다. 승리한 제룡은 희강왕으로 즉위하였다.

837년에 균정의 아들 우정은 잔병(殘兵)을 수습하여 청해진으로 들어가서 장보고와 손을 잡고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김양이 이 소식을 듣고 ‘모사(謀士)와 병졸들을 모 집하여’ 838년에 청해진으로 가서 우정을 만나 더불어 거사할 것을 꾀하였다.

당시는 희강왕이 그의 당여였던 김명에게 살해되어, 김명이 민애왕으로 즉위한 상황이었다. 그 해 12월에 김양이 군사를 일으켜 왕경으로 진출하려 하자 김양순이 ‘무주군(鷓州軍)’을 거느리고 도우러 왔다. 우정이 또 용사들인 염장·장변·정년·낙금·장건영·이순행 등 여섯 장수를 보내니 군사의 위풍이 자못 당당하였다. 무주 철야현 북쪽에서 대감(大監) 김민주의 군사를 쳐부수고 경주로 진격하였다.

839년 정월에 김양의 군사는 대구에 이르렀다. 민애왕은 김흔으로 하여금 왕군(王軍) 10만을 이끌고 김양의 군대를 막으려 하였지만, 오히려 대패하였다. 이에 달아나던 민애왕은 병사들에게 살해되고, 마침내 우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때 김양은 과거 자신을 쏜 흰백을 불러 “개도 주인이 아니면 짚는 법이다. 그대가 주인을 위하여 나를 쏘았으니 의사(義士)다. 내가 그대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였다. 이에 잔병들이 이 말을 듣고 “흰백에게도 이러한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라!” 하며 감복하며 기뻐하였다.

김양이 거느렸던 ‘족병’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친족적 결합원리로 구성된 사병조직이었다. 김현창의 난 후 죽임을 당한 김현창의 ‘종족(宗族)’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신라는 관리를 뽑는데 친족을 우선시하는 골품제의 나라였다. 이러한 정치적 수수관계로 인해 친족들이 동일한 정치세력으로 결합할 여지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하대 진골 세력이나 사병조직은 단지 혈연적인 원리에 의해 구성된 것만은 아니었다. 흥덕왕 사후 균정과 왕위를 다툰 제룡은 균정의 형제인 현정의 아들로 그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 김양의 군사를 대구에서 막았던 김흔도 김양의 사촌형이었다. 더욱이 김현창의 난에는 그와 형제간인 김종기가 참여하지 않았다. 김현창의 난 후에도 종기의 집안은 계속해서 중앙정치세력으로 존속하였다. 김양과 김흔이 바로 종기의 손자들이다.

김현창의 ‘종족’이나 김양의 ‘족병’에는 각각 그들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인물들이 참여

하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가(家)’를 단위로 맺어졌다. 즉 세력이 약한 소귀족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귀족에게 의존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김양이 균정 및 우징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은 이러한 점을 말해준다. 당(黨)을 형성한 진골세력들의 결합은 과거와 달리 혈연적 강고함이 약화되었고,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충분히 이합집산이 가능했던 관계였다.

이처럼 하대에는 강고했던 종래의 혈연적 족당이 진골의 분열과 자기항쟁 속에서 분해되고 있었다. 또 진골신분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식도 희박해졌다. 하대사회에서는 골품과 친족 원리를 대신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싹트고 있었다. 귀족세력도 골품이 아니라 경제력과 사병조직에 기초하여 유지되는 실력위주의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진골귀족의 사병조직에는 신분적으로 예속된 노비나 예민(隸民)과 대비되는 자유로운 인물들도 확인된다. 김양이 청해진으로 갈 때 ‘모사(謀士)와 병졸들을 모집하였다’고 하였는데, 김양의 모병(募兵)에 응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김양과 주종관계를 맺은 부류였다. 이들은 비상시에 모병의 형태로 무사(武士)나 책략가로 사병조직에 흡수되었지만, 평상시에도 직접 유력귀족의 문하에 모여들어 ‘문객(門客)’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진골 및 두품 신분층을 비롯하여 일반평민에 이르는 광범위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배훤백도 성씨를 칭한 것으로 보아 제릉에게 의탁한 두품신분의 문객으로 보인다.

귀족과 문객이 결합하여 상하관계를 맺게 되면, 문객은 그들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것이 요구되어진다. 문객의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귀족은 그들의 생계에 대한 보장과 관직으로의 진출을 밀어주었다. 김양이 자신을 쓴 배훤백을 용서하면서 그가 ‘주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용서한 것은 당시 귀족과 문객 사이에 이루어진 주종관계의 윤리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김양의 관용은 배훤백 등 제릉의 잔여세력들에게 사면을 베풀어 자신의 사병으로 재차 흡수하려고 한 조치로 이해된다.

3. 지방세력의 성장과 ‘해상왕’ 장보고

진골귀족의 사병조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우징과 김양의 재기를 도운 ‘장보고’ 세력이다.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소탕한 후 서·남해의 해상교통을 지배하여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고, 그러한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신라의 왕위계승에도 관여한 당대 최고의 지방세력이었다.

섬 출신인 장보고는 어려서부터 물에 익숙했고, 친구 정년과 단팍이 되어 무예를 열심히 익혔다. ‘활보(弓福, 弓巴)’라는 장보고의 어렸을 적 이름은 그가 활을 무척 잘 쏘는 소년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골품제의 나라, 신라는 이 평민출신의 두 청년을 포용하지 못했다. 그들은 신라를 떠나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줄 드넓은 당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

당시 당나라는 기회의 땅이었다. 중국의 황해연안 지역에는—남으로는 양자강 하구에서 북으로는 산둥성 등주까지— 많은 신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연안 운송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있었고,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하는 한편, 중국과 신라 일본을 내왕하며 국제무역에 종사하였던 자들도 많았다. 장보고는 모험임을 알면서도 그의 능력 하나만을 믿고 당으로 건너갔다. 무예 실력이 출중했던지 결국 그는 서주(徐州) 무녕군(武寧軍)의 장교로 출세하였다.

‘무녕군’은 산둥반도에 웅거했던 절도사 이정기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독립적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만든 군부대였다. 이 시절 장보고는 화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산둥지역을 장악하고, 발해와 신라와의 교역을 통해 일약 당나라 최고의 지방군벌로 성장했던 ‘이정기의 신화’를 몸소 느끼고 체험했다. 고구려유민에 불과했던 이정기와 그의 자손들이 황제도 어쩔 수 없었던 지방 세력으로 성장해갔던 힘과 방법에 서서히 눈을 뜨면서, 장보고는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게 된다.

지체도 변변치 않았던 섬소년 ‘활보’는 이제 당나라의 대성인 ‘장씨(張氏)’가 되어 828년 신라로 금의환향한다. 그는 흥덕왕을 만나 해적을 소탕하겠다고 당당히 말한다. 당시 해적은 신라의 골칫덩어리였다. 그칠 줄 모르는 자연재해와 진골귀족의 가혹한 수탈로 몰락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산적이나 해적이 되었다. 해적들은 신라인들을 잡아 당에 노예로 팔거나, 해로로 수송되던 국가의 세금과 귀족 농장의 수취물을 약탈했다. 장보고는 흥덕왕 앞에 ‘청해진(淸海鎭)’ 구상을 내놓았다. 청해진은 오늘날의 완도로 해상 교통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조운선과 대외교역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이곳에서 병사를 키워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의 공적 유통체계를 재건한다는 것이 장보고의 계획이었다.

장보고는 왕의 승인을 받고 지방민을 규합해 1만여 명의 군대를 양성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였다. 그에게 내려진 ‘대사(大使)’라는 벼슬은 신라의 기존 관직 체계에는 없는 특별한 직함이었다. 청해진은 건설 당초부터 장보고의 개인적 역량에 기초한 독자적인 세력의 성격을 띠었다. 이후 급속히 장보고의 세력이 성장한 데에는 골품제에 구애되지 않는 장보고의 인적 네트워크 창출이 큰 몫을 했다. 장보고는 과도한 세금수탈로 내몰린 빈민들을 보듬어주었고, 진골에게 천대받던 지방출신의 인재들을 포용했다. 세력가가 된 뒤에도 과거의 친구를 찾아온 정년을 홀대하지 않았다. 또 8세기 이래로 황해연안에서 왕성했던 신라인의 해상 활동 능력을 적극 활용해 이 지역 세력들을 묶고 조직화했다. 결국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동중국해 일대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여, 미국의 저명한 동양사가 라이샤워의 말처럼 ‘해상왕’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관리가 장보고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의 사신단과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과 귀국 여정을 도와줄 것을 탄원했던 점은 당시 일본과 당을 잇는 해상교통로에서 그의 위세가 얼마나 컸던가를 여실히 증명한다. 장보고는 당나라 산둥반도의 문등현(文登縣) 적산촌(赤山村)에 법화원(法華院)을 건립하고 연간 500석을 추수하는 토지를 보시하였다. 이 법화원은 상주하는 승려만 30여 명이며, 이 지역 신라인들

의 정신적인 귀의처로서 법회 때에는 신라말을 사용하였고, 한꺼번에 250여 명이나 참석했다.

장보고는 무역 활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실세 권력자와도 교섭하였다. 일본 조정에 무역선과 함께 ‘회역사(廻易使)’를 파견해 서신과 공물을 보냈고, 당나라에도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의 인솔 하에 교역선을 보냈다. 장보고가 회역사와 견당매물사의 칭호가 붙은 사절을 파견했다는 사실은 그의 야망이 무역을 넘어 정치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제 장보고는 강력한 군대와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부를 축적한 신라의 최고 지방세력, 아니 동아시아의 해상왕으로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836년 신라의 왕위계승에 패배한 김우징이 권도중래를 위해 장보고에게 의탁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838년 경주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터져 희강왕이 피살되고, 민애왕이 즉위하였다. 이러한 신라 중앙의 내분과 정변을 틈타 장보고의 지원을 받은 김우징이 수도를 탈환해 신무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나 1등공신인 장보고는 이제 오히려 그의 막강한 힘 때문에 중앙정부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결국 장보고는 841년 중앙에서 보낸 자객 염장(閔長)에게 암살되었고, 청해진의 시대는 끝나고 말았다.

장보고는 이렇게 불의에 피살되었으나, 그는 8세기 후반 이후 성장하고 있었던 신라 지방세력의 선구적 존재였다. 골품제의 테두리 속에 얽매어 있던 진골귀족들과는 달리, 그는 혈연보다는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의 세력을 뭉쳐나갔다. 기존의 정치질서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인간관계는 천년을 버티온 거인 신라를 꺼꾸러뜨리는 새 시대의 서막이었다. 귀족과 문객 사이의 결속은 비록 호혜적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골품제의 신분질서에 제약되는 주종관계였다. 그러나 장보고세력은 이후 신라의 왕권에 대항할 정도로 중앙귀족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진골귀족 하의 사병조직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보고세력에서 주목되는 점은 하대에 들어와 지방사회가 과거 중앙에 예속된 존재에서 이제는 신라 중앙의 권력재편에도 개입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김문경·김성훈·김정호(편), 1993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이진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